

석유공사, 석유개발 심포지엄 개최

한국석유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<석유개발 심포지엄 2009>을 6월10일 안양 본사에서 개최했다.

정부의 석유공사 대형화정책 과제 달성을 위한 <GREAT KNOC 3020>를 주제로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김정관 실장을 비롯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, 에너지경제연구원, SK에너지, 대우인터내셔널 등 산·학·연 기관의 관련인사 약 250여명이 참석해 토론의 자리를 가졌다.



석유개발 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는데 국내 유관기관을 비롯해 해외 Wood Mackenzie, CERA 등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▲해외 석유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과 전략방향에 맞추어 한국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성장모델 ▲국제 석유시장 및 석유산업의 거시경제에 대한 전망과 방향 ▲석유자원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 및 미래지향적인 석유자원 확보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.

석유개발 심포지엄은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과 석유개발에 따르는 리스크 확대 등 석유개발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석유개발 기업들이 직면한 사업환경을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해외 자원 개발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뜻 깊은 기회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2009/06/11>